

나는 공공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규칙을 만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규칙 정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임산부나 아이 같은 노약자 등은 매우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예를 들면, 임산부가 담배 연기를 가까이 하면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제외하고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게 된다. 공공 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합니다(~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나는 때때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보지만, 그런 좁은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면 거기에 담배 냄새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후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은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 중에는 어른도 많지만 청소년 같이 어린 나이의 사람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게는 아직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른에게 책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어른도 나쁘지만 TV에서 담배 광고를 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담배 광고는 청소년과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약자나 청소년이나 담배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약간의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